

나라스페이스, 증권신고서 제출...코스닥 상장 목표

등록 2025.09.29 08:16:15



[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초소형위성 토털 솔루션 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설립된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 플랫폼 개발과 양산, 고빈도 지구관측 영상 확보, 이를 활용한 영상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소형 위성 토털 솔루션 기업이다.

지난 2023년 11월, 개발에 성공한 초소형 위성 'Observer-1A'를 스페이스X(SpaceX)의 팔콘(Falcon) 9 로켓을 통해 발사했으며, 발사 후 약 2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해당 위성으로 확보한 영상은 국내외에 공개되며 기술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나라스페이스는 위성 제작부터 운용, 데이터 처리, 분석 및 플랫폼 제공까지 전 밸류체인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직계열화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위성 제작, 운용, 데이터 처리 또는 분석 중 일부 영역에만 집중하는 것과 달리,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의 개발부터 운용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까지 전 밸류체인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자체 보유 위성을 통해 데이터의 1차 소유자이자 공급자로서 위성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측 시기와 지역을 직접 조절하고 고객 맞춤형 수집(Tasking)을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서비스 모델 구축도 용이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런 구조적 강점을 바탕으로 나라스페이스는 기술 고도화와 수익성 측면 모두에서 뚜렷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라스페이스는 지난해 기준 연매출 43억원을 기록하며 사업성과를 입증했으며, 올해 반기 기준 매출 75억원을 달성하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이사는 "나라스페이스는 상업용 초소형 위성 개발의 전 과정을 내재화하며 우주 검증과 상업화에 성공한 국내 첫 기업"이라며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우주 국방,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독보적인 우주 자산을 확보한 글로벌 우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나라스페이스는 이번 상장에서 총 172만주를 공모할 계획이다. 희망 공모가는 1만3100~1만6500원이며, 이에 따른 총 공모 예정 금액은 225억~284억원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1509억~1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수요예측은 다음 달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일반 청약은 11월 11~12일 진행된다.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